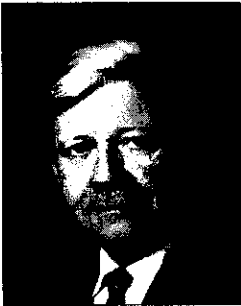


독일 前 수상 헬무트 슈미트와의 대담

: 독일 통일의 재평가와 한국에 대한 교훈

헬무트 슈미트 / 독일 前 수상

김중웅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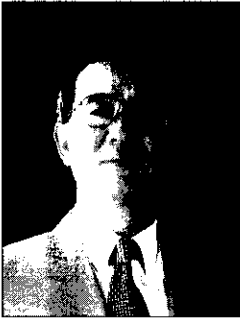


헬무트 슈미트

김중웅: 슈미트 선생님은 과거 8 년간의 수상 재직 기간 동안 독일 통일의 기초를 닦는 데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 10월 3일의 통일이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감동을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6 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극적인 사건에 대한 선생님의 감정이나 평가는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슈미트: 독일인 모두에게 있어서 1990년 10월 3일은 엄청난 기쁨과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 날임과 동시에, 단결·정의·자유가 보장되는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찬 출발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Gate)이 열리던 1989년 11월 9일이야말로 보다 더 깊은 감동의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국민 사이에 퍼져 있던 기쁨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그리고 경제적 실망으로 인해 불행하게도 거의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우리 역사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사건으로서 비록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개인적·정치적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과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중웅: 구서독 정부는 통일 과정에 있어서 점진적인 접근 방법



김종웅

보다는 소위 '빅뱅' (big bang)이라고 불리는 급속한 통합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선택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이러한 선택이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슈미트: 정치적 통합에 있어서 빅뱅 방법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경제 및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점진적 접근 방법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었으며, 그렇다면 독일 경제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웅: 슈미트 선생님은 디 차이트(Die Zeit) 잡지 등을 통하여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 콜(Kohl) 수상의 접근 방법을 매우 날카롭게 비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 수상이 범한 주요 실책으로는 무엇이며, 만약에 선생님이 그의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셨을까요?

슈미트: 당시 구소련의 붕괴에 의해 주어졌던 정치적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점에서 독일 통일에 있어서 콜 수상의 업적은 분명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제적·사회적 통합 정책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통일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재정적 희생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기 보다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였고 때 이른 낙관주의를 전파하였습니다. 당시 콜 수상은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며, 따라서 선거 유세용 선전과 인기 발언에 밀려 진실이 묻혀 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만 유용성을 갖는 단기 전략에 불과하였습니다. 저는 콜 수상이, 과거 윈스턴 처칠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진실된 연설을 해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통일 독일의 국민 여러분, 통일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땀·눈물은 물론, 시간·인내·책임감도 필요합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 골수상의 업적은, 당시 구소련의 붕괴로 주어졌던 정치적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제적·사회적 통합 정책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통일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재정적 희생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 보다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과 때이른 낙관주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당, 사용자 단체, 노동 조합들도 통일 문제 경시에 대해서는 다함께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성공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본 정부는 독일 국민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복돋아내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당시 본 정부는 정부 산하 연구 기관이 제시한 경제적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문제를 경시했다는 점에서는 야당, 사용자 단체, 그리고 노동 조합들도 다함께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김중웅: 선생님께서는 이론적 깊이와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함께 겸비한 이 시대 최고의 경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독일 통일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써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동서독 경제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난 6 년간의 노력을 성공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실패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화폐, 임금, 재정 이전, 사유화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 가운데서 무엇이 성공했고, 또 무엇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슈미트: 하룻밤 사이에 독일은 인구 6,000만 명의 국가에서 8,000만 명의 국가로 커졌습니다. 그 당시 구동독 즉, 독일민주공화국은 코메콘(Comecon)으로 대표되는 동구 시장의 해체로 인해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적 붕괴 상황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구소련이나 과거 공산권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상품을 팔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생산 라인과 공장 전체가 문을 닫아야만 했고, 완전히 새로운 기계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서독의 쉐정부들은 아직도 연간 1조 500억 DM를 구동독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소비 부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로 인해 기업가 정신이 아직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세계 시장 수출을 목표로 가치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 공동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현대적 산업과 공장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동독 지역의

“경제 정책의 오류와 실패는 ① 과거 구동독 마르크에 대한 몇백%에 이르는 파괴적인 재평가, ② 거의 모든 구동독 공장을 서구인에게 판 사유화 정책, ③ 공산 정권 하에 소유권을 박탈당했던 사람의 재산권 인정으로 기업 활동을 위한 활용을 어렵게 한 재산권 처리, ④ 너무 복잡한 구서독의 행정, 법적·의사 결정 절차의 아무 생각없는 적용, ⑤ 거의 무제한적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적자 야기입니다.”

임금은 구서독 지역에 비해 27%가 낮습니다.

경제 정책의 오류와 실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989년과 1990년 이래 너무 많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구동독 마르크에 대한 무려 몇백%에 이르는 파괴적인 재평가는 실수였습니다. 1 : 1 화폐 전환을 구동독인들의 개인적 저축 예금 구좌로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구동독 공장을 서구인에게 팔아버린 사유화 정책에서부터 공산 정권 하에서 소유권을 박탈당했던 사람들의 아들, 사위, 그리고 손자들의 재산권까지 인정해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활용을 어렵게 만들었던 재산권 처리까지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너무도 복잡한 구서독의 행정, 법적, 그리고 의사 결정 절차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구동독의 주 단위 혹은 지역 단위 관료체제에 아무런 생각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이나, 거의 무제한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엄청난 재정 적자를 야기한 구서독 정부의 재정 정책들이 모두가 실수였습니다.

김중웅: 통일 이후 6 년이 지난 지금 쿨 수상이 약속했던 ‘꽃 피는 풍경’ (blossoming landscape)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서 구동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 통일 과정에 있어서 구서독인들의 가장 커다란 불만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랑스럽고 번영스러우며, 진정으로 통일된 독일의 건설을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슈미트: 단시일 내의 경제 기적에 대한 환상을 접어두고, 독일 통일은 재정적, 그리고 정신적 부담을 요구하며 독일 민족 모두가 함께 이를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선 직시해야 합니다. 구동독 지역에서의 자족적 경제 회복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구동독 지역은 구서독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경제적·사회적 변영의 추구에 못지 않게

“단시일 내의 경제 기적에 대한 환상을 접어두고, 독일 민족 모두는 독일 통일의 재정적·정신적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경제적·사회적 번영의 추구 못지 않게 독일인 모두의 심리적 통일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 동서독 주민간의 대화를 유도하여 독일의 다른 과거와 공통의 미래를 얘기하고, 구서독 주민들의 동포애적·도덕적 책임감을 일깨움으로써 아직도 독일인들 마음 속에 존재하는 구덩이를 메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인 모두 심리적 통일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의 독재 이후 구 동서독은 지난 45년간 서로 다른 정치 문화권에 속하였습니다. 사실 구동독인들은 나치가 정권을 잡은 1933년부터 독재에 시달려온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 후대들이 민주적 서구 세계와는 정반대되는 정치·사회체제 하에서 자라왔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공동 성장의 과정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민족재단’(Deutsche NationalStiftung)이라는 재단을 통해 구 동서독 지역간의 정신적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의 동료들과 함께 저는 구 동서독 주민간의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독일의 다른 과거와 공통의 미래를 얘기하고, 구서독 주민들의 동포애적·도덕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그럼으로써 아직도 독일인들 마음 속에 존재하는 구덩이를 메우려고 합니다.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만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양쪽 모두가 서로를 향해 움직여야만 진정한 단일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김중웅: 1990년 독일 통일 과정을 바라보던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놀라웠던 점은 구동독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군사적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지도층은 부력 저항도 불사하며 거센 반발을 보일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그처럼 평화적으로 (즉, 피를 흘리지 않고) 정치적 권력의 이양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슈미트: 베를린 장벽이 열리기 전 며칠간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눈으로 사태를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구동독 전역에 걸쳐 발생한 시위와 집회에 대해 구동독 정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당시 구소련과 다른 위성 국가

“군사적 저항없이 평화적으로 정치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것은 첫째, 당시 저항 운동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우선 제시한 후 행동의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둘째, 당시 구동독 경찰과 군대는 공산주의자라는 이념보다는 독일인이라는 민족 의식을 더 강하게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휘관들도 역시 비슷한 행태를 보이며,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유혈 사태를 피했던 것입니다.”

들의 내부 사정을 제대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 저항 운동이 교회의 지지를 받아 인내와 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1975년의 헬싱키 선언(이 선언은 공산 지도자들에 의해 서명되었음)을 도덕적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저항 운동은 자유에 대한 희망을 우선 제시한 후, 그 다음에 행동의 기반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구동독 경찰과 군대는 공산주의자라는 이념보다는 독일인이라는 민족 의식을 더 강하게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휘관들도 역시 비슷한 행태를 보이며,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유혈 사태를 피했던 것입니다.

김중웅: 선생님께서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피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독일 통일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슈미트: 독일과 한반도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본 인터뷰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1993년 파리에서 한국측 학자들과 함께 한국 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상이한 지리적 위치에 처해 있는 양국을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언을 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1989~90년에 발생한 독일 통일은 냉전의 종식을 마감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독일의 경험이 한국에 부언가 교훈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남북한은 50년대에 서로 치열한 전쟁을 치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과는 달리 구 동서독은 이미 70년대와 80년대에 공식 차원에서의 양자 관계를 규정하는 일련의 조약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쪽 국민들간에 제한적이거나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거의 총체적인 고립 상태에 처해 있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독재 정권이 독일에서와 같은 자발적 합의에 참여할 가능성보다는 정권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국·러시아와 경제적·재정적·정치적 관계를 잘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조심스럽게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상호 접촉과 통신을 보장해주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은둔적인 폐쇄 국가로 남아 있으며, 정보의 유통, 교환, 여행 등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남북한간의 통일 과정에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의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북한간의 엄청난 소득 격차로 인해 양자의 통합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작업을 요합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경제는 과거 구동북보다 훨씬 더 왜곡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정치적 붕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남한이 현재의 휴전선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정치적 혼란과 그에 따른 대량 난민을 모른 채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남한은 이를 통일의 기회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물론, 점진적 절차가 급작스런 절차보다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약이나 협약에 바탕한 점진적 통일에 대비한 계획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총체적인 고립 상태에 처해 있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독재 정권이 독일에서와 같은 자발적 합의에 참여할 가능성보다는 정권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국·러시아와 경제적·재정적·정치적 관계를 잘 유지·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조심스럽게 유지해나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상 가능한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따를 것입니다.

한국민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민은 단지 산업화된 사회로서 뿐만 아니라, 독특한 문화적 유산을 지닌 뛰어난 동양 민족으로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삼국시대 하에서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민족은 현재의 분단 상황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統**